



영화 '백두산' 하정우

“재난 전문 배우? 그런 상황에도 진지하지 않고 나사 풀린 듯한 인물에 끌려”

백두산 폭발 막기 위해 투입된 군인 역 ... “이병헌의 연기는 악마같이 완벽해”

총무로 대표되는 배우이자 '최연소 1억 관객' 타이틀을 가진 배우 하정우(41·본명 김성훈)가 이번에는 백두산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지난 19일 개봉한 영화 '백두산'에서다.

영화가 개봉하고 서울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하정우는 “백두산 폭발이라는 소재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정우가 연기한 조인장은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한 비밀 작전에 투입된 대한민국의 폭발물처리반 대위다. 전역 대기 중 작전팀의 기술담당으로 북한에 가게 된다. 작전의 키를 쥔 북한 요원 리준평(이병헌 분)을 만나 함께 백두산 폭발을 막으려 한다.

하정우는 조인장을 영화 '더 록'(1996)의 니컬러스 케이지에 비유했다. “조인장의 진지하지 않고 나사 풀린 것 같은, 흐물흐물한 느낌이 흥미로웠어요. 전투병이 아니라 기술병인데, 전투 상황에 맞서 낯설고 두렵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극대화하면서 표현해가려고 했죠.

그 와중에 리준평을 만나서 함께 여정을 겪으며 조인장도 성장하게 되죠.”

리준평을 연기한 이병헌과는 처음으로 함께 연기 호흡을 맞췄다. 하정우는 이병헌에 대해 “악마같이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제가 병헌이 형제 전화드렸어요. 형이랑 '백두산' 하고 싶다고. 형은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슈퍼 대스타' 같은 느낌인데, 막상 함께해보니 인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연기할 때는 에너지가 참 좋고요. 20~30대 같은 열정이 느껴진다고요. 그 열정까지도 계산된 것 같은, 악마 같은 완벽함이 있었죠.”

두 사람의 호흡은 중반부 장갑차에서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빛을 발한다. 하정우는 “이 장면의 대사는 거의 에드리브였다”고 했다.

조인장은 남한에 만삭의 아내가 있는 설정. 그의 아내 지영은 가수 겸 배우 배수지가 연기했다. 하정우가 지영역에 배수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인장과 지영이 초반 알콩달콩함을 뽐

내는 장면에서는 “너무 낮간지럽고 민망했다”고 하정우는 웃었다.

“지영이 인장의 볼을 잡는 장면에서는 정말 민망해서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리고 지영을 부르는 애칭이 '귀뚜뽕'인데 그 애칭도 사실 싫었어요. (웃음) 제가 그동안 남자 배우들이랑만 촬영해서 그런가 봐요.”

'백두산'은 같은 시기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보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됐다. 개봉일 45만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해 우선 흥행 전망이 밝다.

하정우는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소화할 수 없는 장면은 오픈세트로 직접 만들어 찍었다. 북한의 거리 같은 것은 직접 지었다”며 “보조출연자나 스태프들도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 2배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봉 첫날 스코어에는 우선 감사하죠. 후반 작업도 고됐고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린 영화거든요. 물론 영화에 문제점도 있긴 하겠지만요. 저 역시도 흥행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주연 배우니까

흥행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늘 있죠.”

이제 막 '백두산'이 첫선을 보인 지금 여전히 하정우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보스톤 1947'을 촬영 중이며 내년 2월에는 영화 '클로젯' 개봉을 앞둔다. 그는 “내년에는 모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1년 쉬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고 웃었다.

이미 '허삼관'(2015) 등에서 보여준 연출에 대한 욕심도 놓지 않고 있다.

“연출의 매력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잖아요. 창의적인 작업에서 오는 재미가 있어요.”

한편 영화 '백두산'이 개봉 4일째인 22일 오전 11시 관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고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백두산'은 개봉 3일째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12월 최고 흥행작인 '신과함께-죄와 벌'과 역대 개봉 영화 흥행 2위인 '극한직업'의 200만명 돌파 속도와 같다. /연협뉴스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 그 해법을 찾다’

TBN 광주교통방송
오늘 개국특집좌담

TBN 광주교통방송이 23일 오후 5시부터 5시 52분까지 개국특집좌담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 그 해법을 찾다'를 방송한다.

이번 개국특집좌담은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 환경, 건강적 측면에서 대중

교통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했다.

패널로는 광주시의회 박미경 환경복지위원장, 광주시 최태조 대중교통과장,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자가용없이 한달 살기'에 참여했던 우수 참가자들과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시민의견담으로 함께 한다.

광주교통방송 주파수는 FM 97.3MHz(전남 동부권 103.5MHz)이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야구로 개혁·풍자 잡은 '스토브리그' 11% 돌파

'사플 인플' 21.9%~25.7%

굵은 대로 굵은 야구단의 상황은 현실적이지만, 그걸 혁신해내고야 마는 단장 백승수는 비현실적이라 더 짜릿하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한 SBS TV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 시청률은 8.2%~11.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을 썼다. 전날 방송에서는 백승수(남궁민 분)와 이세영(박은빈)이 짝짜 야구단 드림즈의 목은 비리 척결을 위해 힘을 합치며 깊게 박힌 들들을 하나씩 빼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주임동규(조한선)를 내보내고강두기(하도권)를 극적으로 영입했던 백승수는

이번에는 여러 비리를 저질러온 스카우트팀장 고세혁(이준혁)을 아웃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이어 '용병 개혁'에 나섰다.

'스토브리그'는 야구를 소재로 하지만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극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 풍자와 혁신에 대한 갈망, 대리만족을 모두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KBS 2TV 주말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21.9%~25.7%, 4회 연속 방송한 MBC TV 토요극 '두 번은 없다'는 6.4%~9.2%, 8.2%~9.0%의 시청률을 보였다. tvN 주말극 '사랑의 불시착'은 7.4%(이하 유료가구), JTBC 금토극 '초콜릿'은 4.230%, TV조선 '간택'은 2.556%였다. /연협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닥터 365 35 잘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드림스컴트루 프로젝트 최고의 하루 with 프렌즈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수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10 열린채널 광주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플 샐러드(재)	20 나쁜사람(재)	00 최강 1교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우이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볼24 55 성탄기획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주X말의 영화 : 잠은행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00 VIP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30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 <공동경비구역 JSA>	10 언니네 샐롱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MBC스포츠 2019-20 PBA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55 별일 없이 산다	18:30 최고대 호기심 딱지
07:30 뽀뽀뽀 뽀로로	14:45 물랑	19:00 스파이더맨
08:00 똥동맹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가 폴리(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숨겨진 세계 라플란드 -백야의 땅, 비밀의 낙원>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30 한국기행 <고택에서 하룻밤 1부 150년 고택, 할머니의 마지막 하루>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성탄 특집다큐 -행복한 음악회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꾸러기 천사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3일 (음 11월 27일 甲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다. 48년생 꼼꼼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쉽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60년생 예기치 않은 정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72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84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96년생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생기면서 급반전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2, 10

丑 37년생 이익이 따르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49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순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73년생 별 문제없이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85년생 침착하게 행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리라. 97년생 소강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92, 85

寅 38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50년생 세심하게 정리 정돈해야 할 때다. 62년생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요령이 절실하다. 74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먼저 처리함이 맞다. 86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8년생 힘든 와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온다. 행운의 숫자 : 34, 75

卯 39년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51년생 유지한다면 실기하는 길로 이어질 것임에 변하다. 63년생 일상의 정보에 밝아야한다. 75년생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87년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금강철이다. 99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56

辰 40년생 인식한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52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64년생 시려 깊은 선택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76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 되어야만 한다. 88년생 치열함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00년생 종합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4, 50

巳 41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53년생 참신해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법이다. 65년생 모든 일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라. 77년생 돕는 이가 많아서 유리한 국면을 점하게 되리라. 89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허들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01년생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7, 48

午 30년생 원칙대로 추진하자. 42년생 반작용의 현상에 놀랄 수도 있다. 54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66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78년생 속아서는 아니 된다. 90년생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73, 62

未 3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삼가하는 것이 정답이다. 43년생 고정 관념을 깨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55년생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 67년생 보는 이의 마음만 안타깝게 할 것이다. 79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한다. 91년생 종합적이고 계속적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1, 30

申 32년생 재고할 필요가 있느니라. 44년생 분주한 시기에 겹치는 일이 많아서 번거롭게 한다. 56년생 한 번 모순에 빠지면 연쇄적인 과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국량이다. 68년생 운세 하락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0년생 체면치레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92년생 부실한 판국이므로 잘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77, 24

酉 33년생 자중하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45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57년생 이익이 생기기는 하지만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69년생 열심히 행하더라도 기대해왔던 바에 비해서 성과가 현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81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93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순조롭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80, 53

戌 34년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만 제대로 되어 가리라. 46년생 바라만 보아도 활용할 것이다. 58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70년생 지난 일은 차치하는 것이 속 편하다. 82년생 혼자 조처함이 제일 수월할 것이다. 94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라. 행운의 숫자 : 25, 55

亥 35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 질 것이니라. 47년생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59년생 아예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오늘 반드시 실행하자. 83년생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다. 95년생 목표가 분명하다면 재물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43, 73